

한국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수행의 안정성 : 중단연구

박 해 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신 민 선*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대학원생)

서론: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영아에 대한 연구는 1980년 이후 활발히 누적되면서 영아가 지닌 선천적인 지각 능력과 기억 능력이 적절한 연구 방법과 측정 도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학의 발달로 영아기 사망률이 낮아지고 조산아의 생존률이 높아지면서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확한 영아기 발달 측정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다. 국내에서도 특수교육법의 개정으로 조기진단에 대한 요구와 함께 영유아의 잠재 가능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교육 흐름에 따라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초 자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이형신, 변상형, 1999). 현재 영유아 발달을 진단하는 도구들이 몇몇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장애아 발달을 진단하는 검사이거나, 번안하여 사용되어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유아의 발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연령별 발달을 기준지향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발달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K-BSID-II)를 사용하여 영아기 지능의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192명의 1-42개월 사이의 영아를 대상으로 5개월에서 16개월 사이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차 검사와 2차 검사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1, 2차 검사의 인지 원점수, 인지 발달지수, 동작 원점수, 동작 발달지수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각각 .98($p < .001$), .19($p < .05$), .99(.001), .32($p < .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발달 및 동작 발달 원점수간 상관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월령 집단별로 표준점수화된 지수간의 상관은 낮지만 유의하였다. 둘째, 1차 검사와 2차 검사 간격에 따른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수행의 안정성분석 결과 간격과 안정성간에 정적 상관이 도출되었다. 추후 분석결과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중 검기간격이 컸던 집단은 월령이 높은 집단이었고 월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능 검사 수행이 안정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영아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1차·2차 검사의 인지/동작지수의 차이 분석한 결과 이러한 배경변인들에 따른 일관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결과 K-BSID-II는 BSID보다 검사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며, 지수보다는 원점수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장면에서는 두 지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Key word: 한국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K-BSID-II), 검사 안정성(Test-retest stability), 1-42개월 영유아(1-42 month olds), 인지발달지수(MDI), 동작발달지수(PDI)